

ART KTX

KTX 호남 고속철도 개통으로 전남 지역 미술계가 호기를 맞고 있다.

전남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김충경)이 호텔에서 미술경매를 진행한다.

지역 전업 미술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남도예술은행 특별그림경매를 호텔에서 분기별로 추진한다.

전남문화예술재단은 현대호텔 목포(영암)와 공동으로 그림경매 활성화와 전남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 분기마다 호텔그림경매를 추진한다.

첫 경매는 16일 오후 1시30분 현대호텔목포(영암) 문화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특별그림경매에서는 서지영 작가의 '내 마음을 열어봐'(한국화), 양홍길 작가의 '인간과 자연10'(한국화), 박인희 작가의 '매밀꽃과 나비'(서양화) 박종원 작가의 '우공이산'(서각) 등 남도의 봄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을 총 30점 선보인다.

경매에 출품된 작품들은 오는 17일 까지 호텔현대목포(영암) 문화갤러리에서 미리 볼 수 있다. 경매시작가는 시중가격 대비 최대 70% 할인된 금액으로 책정됐다.

최근 현대 미술 시장에서 경매와 아트페어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경매의 경우 작품 선택의 폭이 넓고 아트페어는 수많은 작가와 컬렉터가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어 미술계의 흐름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내에서도 수많은 경매

남도 미술계 KTX 효과 기대

전남문화재단 호텔 경매

16일 현대호텔목포서

GS칼텍스 예올마루와

남도예술은행 상설전



박인희 작 '메밀꽃과 나비'

와 아트페어 등이 생겨났고, 호텔에서 곳곳에 작품을 감상하면서 구입할 수 있는 호텔아트페어 등도 인기를 끌고 있다.

또 전남문화예술재단은 KTX개통으로 여수·순천·광양 등 전남 동부권역을 찾는 수도권 관광객이 늘고 있어 GS칼텍스 예올마루와 함께 분기별로 '남도예술은행 그림경매전'도 열고 있다.

2분기 상설기획전은 오는 6월 1일부터 20일까지 7층 전시실에서 열리며 전시 마지막 날인 20일 오후 2시에는 특별경매가 열린다.

이와 함께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진도 윤립산방에서 상설로 열고 있는 토요일그림경매도 변함없이 추진된다.

한편 남도예술은행은 지난 2006년 8월부터 진도 윤립산방에서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토요일그림경매를 진행하고 있다. 남도예술은행 홍보 및 그림경매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광주·목포역 특별경매를 시작으로 순회 경매를 열고 있다.

김충경 사무처장은 "기업체·공공기관과 연계해 그림경매의 위상을 높이고 전남의 미술인들의 작품을 다양한 곳에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호텔 그림경매행사 등 순회경매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061-280-5832.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조선섬유조형회 창립 30주년 기념전

15일까지 조선대 미술관

섬유 예술의 지평을 넓혀온 조선섬유조형회(회장 한경희)가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아 15일까지 조선대학교 미술관에서 창립 30주년 기념전을 연다.

조선대 미술대학 교수와 이 대학 출신 섬유작가, 섬유단체 등으로 구성된 조선섬유조형회는 이번 전시에서 무명, 양모, 비단, 노방, 마, 펄프, 한지 등의 섬유 작품을 선사한다.

또 다양한 오브제를 활용하여 섬유 예술 고유의 질감과 색상을 선보인다.

27명의 회원과 조선대 디자인학부 섬유패션전공 섬유트랙 2학년~4학년 학생 41명도 함께 전시해 참여했다. 재학생들은 '자화상'을 주제로 2학년은 염색, 3학년은 자수, 4학년은 자수와 섬유 클라주 기법의 작품을 전시한다.



한선주 작 '존재의 이유'

조선섬유조형회는 1986년 남도예술회관에서 첫 전시를 시작으로 매년 전시회와 세미나를 열고 있다.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섬유 예술'이라는 장르를 시작한 조선섬유조형회는 염색과 직조라는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새로운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활발한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한국의 대표적인 섬유예술가인 노은희·한진주 조선대 교수, 정예금 작가, 김영희 고려대 교수, 김윤희 한국천연염색박물관 문화교육팀장, 류명숙 배화여대 겸임교수, 박유진 가사공방 대표 등 많은 작가를 배출했다.

전시도 활발하게 열고 있다. 서울 화인갤러리(1991년), 한국공예문화진흥원(2003년) 전시이 이어 2011년에는 중국 상해문화원 전시실에서 첫 해외 전시를 열었다. 문의 062-230-7731.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피카소



자코메티

피카소 '알제의 여인들' 1968억원 '경매 최고가'

자코메티 '손가락으로...' 1549억원 2위

역대 미술품 경매가 '톱 10'

1	파블로 피카소 '알제의 여인들'	1억7천936만5천달러
2	알베르토 자코메티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남자'	1억4천128만15천달러
3	프랜시스 베이컨 '루치안 프로이트의 세가지 연구'	1억4천240만달러
4	에드워드 몽크 '질규'	1억1천992만달러
5	파블로 피카소 '누드, 녹색 잎과 상반신'	1억648만달러
6	앤디 워홀 '실버 카르네시'	1억544만달러
7	피델로 피카소 '파이프를 든 소년'	1억416만달러
8	알베르토 자코메티 '걷는 남자'	1억393만달러
9	알베르토 자코메티 '전차'	1억96만달러
10	파블로 피카소 '고양이를 안고 있는 도라 마르'	9천521만달러



전 세계 미술품 경매 역대 최고가 작품이 탄생했다.

20세기 미술 거장 파블로 피카소(1881~1973년)의 유화 '알제의 여인들'(Les Femmes d'Alger)이 11일(현지시간) 밤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전세계 미술품 경매 역대 최고가에 낙찰됐다.

또 스위스 조각가 알베르토 자코메티(1901~1966)의 청동상도 조각 작품 가운데 역대 최고가 경매 낙찰 기록을 세웠다.

두 사람의 작품은 역대 미술품 경매가 '톱 10'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피카소는 모두 4점, 자코메티는 3점이 10위 안에 들었다.

'알제의 여인들'은 이날 경매에서 1억7936만5000달러(한화 1968억 1721만원·수수료 12% 포함)에 낙찰됐다. 1955년 작품인 '알제의 여인들'은 피카소가 외젠 들라크루아의 동명 작품을 재해석해 그린 15개 연작 중 마지막 작품이다.

자코메티의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남자'(L'Homme au Doigt, Pointing Man)는 11일(현지시간)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1억4130만달러(약 1549억3545만원)에 낙찰됐다. 자코메티 특유의 비췌 마

른 팔다리와 발만 커다란 조각의 특징을 갖춘 이 조각상은 1947년 작품으로, 약 178cm 높이의 실물 크기다. 자코메티는 이 제목으로 6개의 조각상을 만들었다. 이 작품은 역대 경매가 1위를 기록했다.

예술품 경매 전문가들은 이날 경매낙찰가가 최고가를 기록한 것은 예술품의 높은 투자 가치와 걸작을 찾는 부유한 수집가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번 최고가 낙찰과 더불어 역대 미술품 경매가 '톱 10'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최고가 작품이었다 이번에 3위로 하락한 작품은 프랜시스 베이컨의 3폭 짜리 유화 '루치안 프로이트의 세가지 연구'다. 사람을 일그러뜨린 베이컨의 기괴한 인물화는 1억 4240만달러에 낙찰됐다. 또 국내 미술팬들에게 친숙한 에드워드 몽크의 '질규'(1억 1992만달러)가 4위를 차지했으며 팝아트 선구자 앤디워홀의 '실버 카르네시'는 1억 544만달러에 낙찰돼 6위를 기록했다.

피카소 작품의 경우 '누드 녹색 잎과 상반신'(1억 648만달러)이 5위를 차지했으며 '파이프를 든 소



4



7 피카소



6

년'(1억4146만달러)과 '고양이를 안고 있는 도라마르'(952만달러)가 7위와 10위에 랭크됐다.

자코메티의 '걷는 남자'(1억96만달러)와 '전차'(1억 96만 달러)는 8위와 9위였다. /김경민기자 kki@연합뉴스

2015년 대한민국 부동산시장 대전망과 서,남해안 미래가치 분석

서,남해안 부동산 투자

- 전남도청2차(오룡지구)
- 해남 산이면 위락도시(솔라시도)
- 해남 화원면 대우해양조선

투자가치 판단과 미래분석

궁금하세요? 정말 궁금하세요?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

재테크 상담소

상담전화 ☎(062)576-7955

※ 현지 실전전문가 무료상담

이태리가구

명품소파

던롭침대

가구빌딩

SINCE 1990 **홍스케이스** www.hong79.com 신상품 매주 입고 광주 동구 장동 58-15 ☎1899-0240